

한가위, 우리동네 달인을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평권마을'을 찾은 광주 은초롱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품으로 장식된 넓은 벽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를 무료로 양친 오른쪽 두번째 남자가 마을의 총장 김동균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동체

추석이면 과실이 영글고 들녘이 풍성해지지만 마음은 한없이 헛헛해집니다. 우리가 자주 핑계삼는 삶의 비정함이 정을 나누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눈길만 주어도 희망을 얻을 정도로 정과 배려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작은 울타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그런 소중한 '달인'들을 찾았습니다. 훈훈한 이들의 이야기로 삶을 비추고 진정한 나눔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11·12면

“삶의 터전까지 내놓으니 인생이 예술”

김동균 양림동 평권마을 이장

더 이상 나눌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삶의 남은 터전을 함께 나누니 모두의 예술이 됐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는 이처럼 남은 물건과 담장을 아낌없이 내준 '평권마을'이 있다.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떠나간 이들로 빈집이 생겨났다. 주민 김동균(63)씨는 이웃이 두고간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했다. 이들 폐품들도 한 때는 앞집 순이가 타고다니던 세발자전거였고, 옆집 아저씨의 출근 시간을 알려주던 벽시계였다. 또 신랑의 허기진 퇴근길을 달래주려 연탄불 위에서 별나게 달궈지던 새색시의 냄비였고, 불쾌한 낯빛의 젊은 아비가 수시로 마당에 내던져 귀퉁이가 찌그러진 장미 문양 양은 밥상이었다. 김씨는 이들 물건을 하나 둘 골목 어귀에 장식했다. 오래된 물건이 모이기 시작

하자 그러대로 '예술 비슷한 것'이 됐다. 입소문이 나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마을 이름도 생겼다. 마을의 이름은 노인들의 발걸음에서 따왔다. 이렇게 '평권 마을'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200여m에 달하는 골목과 뒷밭, 마을 입구 등지는 오래된 물건을 장식한 이색 관광지가 됐고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도심 문화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는 예술가들도 늘었다. 화가들은 이곳에 아예 작업실을 냈고, 주민의 손재주 있는 딸들은 관광객과 함께 염서를 그리거나 달고나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평권마을'의 총장인 된 김동균씨는 “과거”를 무척대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나눔'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협동조합 산수다락' 한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송혜경 전 대표(맨 왼쪽)와 생대문화예술교육(압화)을 받고 있는 주민들.

“공동화된 구도심 마을공동체로 디자인”

협동조합 산수다락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했습니다.” 디자이너인 송혜경(32) 씨는 쇠락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께부터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찾은 해결책은 청년과 주민들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였다. 2014년 4월에 뜻을 같이 하는 예술경영자, NGO 활동가, 생태문화기획자, 다류감독 등 청년 6명과 커뮤니티·디자인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협동조합 산수다락’을 설립했다. 이들은 1단계 관계 맺기(사람모으기)→2단계 자원찾기(목표 설정하기)→3단계 장소 만들어 활동하기→4단계 이야기기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산수동의 숨겨진 가치를 찾는 ‘산수마을 재미지도’를 만들고, 그동안 방치된 공·폐가 부지와 자투리땅 3곳에 텃밭·정원을 가꾸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시농업과 디자인을 융합함으로써 흥물이던 공·폐가 부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했다. 특히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비빔밥과 전을 만들어 주민과 나눠 먹는 ‘산수마을 양파이 골목축제’도 열어 ‘마을공동체’의 토대를 다졌다. 현재 조합원은 주민 10명을 포함해 17명이다. 송 전 대표는 “앞으로 주민들이 만든 압화 상품, 인근 ‘나무전 거리’와 연계한 놀이상품(짬뽕이 테이프)과 같은 지역자원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추진해 한 단계 도약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알립니다



※지령 2만호 2015년 5월 28일자 1면

100년을 향한 光州日報 당신이 주인공

광주일보 제 65기 수습기자 모집

내년이면 창간 65주년을 맞는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담대한 신념,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사실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천착해 역사를 신문에 오롯이 새겨왔습니다. 신문과 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 언론 종가에서 100년 역사를 열어가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요강 2면

光州日報社

박대통령, ‘대북 특사’ 제안 거부 북핵제재 한목소리...사드엔 이견

박대통령-3당 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여부 등 대치 방안을 놓고서는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와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패악주의적 당파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의원은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해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더민주 추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하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 고도화만 고려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석 연휴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구름 많음	구름 많음	흐림	구름 많음	흐림	구름 많음	맑음

빨라진 대선시계와 ‘민심’ ▶3·4·5면
송편 만들기·문화 나들이 ▶14·15면
추석연휴 TV프로그램 ▶23·24·25면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특집 28면 발행~14~16일 휴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INTERNATIONAL INTEGRATIVE MEDICINE EXPO
IN JANGHEUNG KOREA 2016

통합의학의 메카, 가자! 장흥으로

2016. 9. 29 ~ 10. 31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

